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 '1인 2역'에 속았다

전화기 여러 대 사용하며 권양숙 여사·메신저 겸 위탁모 역할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공천 암시...광주시장실 찾아가기도

자신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 혼외자'로 속이고 취업 청탁

공직선거법·직권남용 등 수사 확대...납뽀 공모 여부도 조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6·13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인 2역'을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빼앗기고, 사기범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취업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여·49)씨는 지난 12월 윤장현 시장을 포함한 지역 유력인사 여러 명에게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이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을 빌려주 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장은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사자와 전화연결을 했는데, 사기범 김씨는 경상도 사투리까지 섞이면서 윤 시장을 속였다. 이후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과 1월 초에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김씨 가족 명의 통장에 송금했다. 돈은 은행 대출 3억 5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1억원으로 마련했다.

사기 6범인 김씨는 이 과정에서 '1인 2역'을 하며, 윤 시장을 감쪽같이 속였다. 광주에서 휴대전화판매업을 해온 김씨는 전화기 여러대를 사기에 동원했다.

먼저 권 여사로 위장해 접근한 김씨는 윤 시장에 "내가 자주 전화하기가 어렵다. 광주에 내 '메신저' 김XX가 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기르고 있는

위탁모이기도 하다. 그쪽과 얘기를 하시면 된다"며 또다른 자신을 위탁모로 셀프 소개한 뒤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며 공천을 암시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후 사기범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광주시장실을 직접 찾아가 윤 시장에 자신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인 뒤 총 3월 무렵 아들(28)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딸(30)은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 취업시키는 데 성공했다. 윤 시장은 이후에도 권 여사의 메신저 겸 위탁모를 자칭한 김씨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김씨와 윤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1인 2역으로 지방선거 등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윤 전 시장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는 평범한 외모지만, 지역정치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어 (초보 정치인들)이 자칫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당시 김씨로부터 윤 시장과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른 유력인사들은 사기

사건임을 직감했지만, "혹시 실제 권 여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 10월 첩보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한 인사가 노무현 재단측에 '권 여사에 대해 광주에서 여러 말이 나온다'며 관련 사실을 알렸고, 재단측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하라"고 답변해 추가 신고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의 자금출처·성격 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알려진 김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식과 목비린 행사에 나선 김씨는 검찰에선 식사를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보낸 시점(2017년 12월 말~2018년 1월 초)이 민주당 공천 논의가 한창이었던

점과 시장후보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앞선 이음섭 현 광주시장의 출마설이 유력 시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공천을 염두한 윤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일각에서 떠돌고 있는 사기범 김씨와 권양숙 여사의 친분설, 노 전 대통령 혼외자설, 건설사 1억원 제공설(윤 전 시장이 지인에게 빌린 돈) 등에 대해서도 진위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권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와 윤 전 시장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공천을 거론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일단 재선 등 공천을 암시한 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직권남용, 뇌물혐의 등)는 윤 전 시장을 조사한 후 거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5일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전남경찰청은 취업 청탁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송갑석 의원 '불기소'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송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이 경쟁자인 박해자 후보를 2차레나 여성전략공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이러한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 서구갑이 여성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여론조사 1위였던 송 의원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후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송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송 의원이 지난 4월 18일 SNS 계정에 "당을 지켰다는 박해자 후보 실상은 문재인 흔들기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이실직고하고 사죄하라"

참여자치21 성명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양심고백과 사죄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4일 성명을 내고 "윤 전 시장은 사기사건 전말을 스스로 밝히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긴 것도 모자라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도 연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으로 광주시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고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어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해의에 체류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전 시장의 비합리한 태도"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윤 전 시장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사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조선대 혁신위 출범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출범식이 4일 오전 본관 3층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날 헌편식을 갖고 대학혁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친형 도피 도운 최규성씨 조사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8년간 잠적했던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4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장을 도운 인물은 동생들 비롯해 10명 정도 되고 대부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라며 "이번 수사는 최 전 시장의 태양광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중학교서도 '스쿨미투'...광주교육청, 교사 4명 수사 의뢰

학생 24명 피해 주장

여자고등학교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제자에 대한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스쿨미투)이 중학교에서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모 중학교 교사 4명이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학생의 '교사 체벌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다 이번 사안이 교사 성비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나섰다.

교육청이 최근 이 학교 3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진술 조사를 한 결과, 24명의 학생이 교사 4명에게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사가 최근 2년 동안 생활지도를 내세워 여자자들 신

체 일부를 만지거나 차마 부위를 사진 찍으려 하는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교사가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여학생 무릎에 잠시 앉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교육청에 밝혔다고 한다.

교육청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명을 병가처리해 학생들과 분리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 진술서 등을 토대로 수사 검토를 한 뒤, 학교 측과 협의해 이른 이번 조사를 피해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넘겨 받은 서류를 보면, 교사들의 잘못을 체벌로 봐야 할지, 성희롱·성추행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절도범 억울" 단골카페서 난동

수 절도범으로 몰린 40대 무혐의로 풀려난 후 해당 카페를 찾아 난동을 부려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3월 밤 10시에 광주지 서구 치평동 모 카페 안에서 종업원 B(26)씨를 폭행할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에 걸쳐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A씨는 지난 1일 해당 카페에서 음료수를 훔친 혐의로 신고 당해 CC-TV 분석 결과 무혐의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단골 고객을 도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구매 9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9324	1	동구 계림동 100-11 글로베빌주상복합 201동 13층 1304호 84.780㎡	아파트	229,000,000	2018년7월현재미납관리비있음, 2018타경14173[중복]
	2	북구 허서로483번길37, 101동 12층 1205호 [용도별, 미래하이클러스] 58, 8757㎡	아파트	201,000,000	
2018타경 11693	1	북구 매곡로37, 102동 19층 1906호 [매곡동, 삼익아파트] 84, 87㎡	아파트	153,000,000	
	2	서문대로704번길10, 101동 1층 103호 [리빙동, 호반리빙비즈니스타워] 84, 9579㎡	아파트	287,000,000	
2018타경 67429	1	남구 양정로14, 8층 801호 40.53㎡	아파트	61,700,000	2018년8월현재미납관리비있음
	2	광산구 산골동 883-2 부영아파트 301동 9층 906호 84.7866㎡	아파트	209,000,000	
2018타경 13743	1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273-3 597㎡	대	17,440,750	일괄매각
	2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273-3 597㎡	대	17,440,750	일괄매각
2018타경 69303	1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678 987㎡	대	221,198,000	일괄매각, 수목포함
	2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678 987㎡	대	221,198,000	일괄매각
2018타경 11549	1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1호 35.7㎡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2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2호 22.4㎡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2018타경 11549	1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3호 22.4㎡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2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4호 22.4㎡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2018타경 11549	1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5호 22.4㎡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2	광산구 우산동1471 가동 2층 206호 22.4㎡	다세대	334,000,000	일괄매각, 1층용도변경(주차장용주목)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12412	1	서구 화정동49번길38, 2층 240호 [쌍촌동, 쌍촌동도시형생활주목] 16, 9685㎡	다세대	64,000,000	
	2	광산구 양동 92-2 860㎡ [현황무나무대지]	전	22,3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18타경 12306	1	달양군 고서면 보촌리 787-3 2670㎡ [백옥호지비5분5초, 1천부, 수목매각제외,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내화분배치제외]	답	22,962,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 1회에만한, 농지취득자격증명필수
	2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335 1038㎡	대	13,494,000	간월매각비필수
2018타경 67429	1	달양군 창평면 홍수리 754-6 670㎡	대	135,340,000	
	2	광산구 월곡동 488-1 330.4㎡	대	861,325,0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2018타경15145[중복]
2018타경 11860	1	서구 시청로97, 303 3110호 [지평동, 중흥메스-클러스타워이1] 60, 4554㎡	근린시설	168,000,000	2018년8월기준미납관리비있음
	2	나주시 근린로363, 1층 405호 [민가림동, 혁신도시캐이디타워] 149, 95㎡ [인정4층404호와내부부속채미설치상태의현상가, 상가4층인정4층404호와내부부속채[1면]미설치상태의현상가기타나, 분양장시부터미설치상태로주소사용]	근린시설	233,000,000	호별매각비필수, 2층이상층수면적 233,000,000
2018타경 66143	1	화순군 도곡면 천원리 817 3234.2㎡	대	3,082,716,2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일반적 인위성설비미포함,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되어있으나농림부등기관서태양광발전설비포함
	2	화순군 도곡면 천원리 817 3234.2㎡	대	3,082,716,2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일반적 인위성설비미포함,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되어있으나농림부등기관서태양광발전설비포함

2. 공무자 인사진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에는 우선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유지하여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3. 매각기간: 2018. 12. 26. [수]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9. 기타

10. 2018타경 12047

● 광권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 하는 최고매수신청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능이 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않고 이를 불응시 매각대금에 상응한다. 불응하면 변경으로 인한 불응부구 필요한 경우 매수인원 모두 불응으로 간주함.